

# 광산구 '휴블런스' 맞춤형 복지모델로

### 전국 최초 센터 개소...전국 관심 민·관협력 재택의료돌봄 본격화

정부가 광주 광산구의 '휴블런스'를 100세 시대 맞춤형 건강통합돌봄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구가 만들어 낸 혁신사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우산동 하남삼가에 '건강친구 재택의료돌봄 휴블런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가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건강약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조성 구축을 위한 전국 최초 민·관 협력 건강통합돌봄 플랫폼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정책과제 공모 선정을 통해 '휴블런스(휴먼+엡블런스)'를 시범 운영했다.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검사, 약국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병원동행 서비스'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광주의료사회), LH, 광산구 의사회 등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약자'라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 단절 인력을 동행매니저로 양성해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혼자 살거나 장거리 이동이 힘든 어르신에게 휴블런스는 큰 힘이 됐다.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로 화순까지 가야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휴블



지난달 27일 열린 광산구 건강친구 재택의료돌봄 휴블런스센터 개소식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런스 동행매니저의 도움으로 '병원 가는 스트레스'도 해소됐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화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광산구는 '휴블런스'를 재택중심 의료돌봄 서비스로 고도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휴블런스센터'는 민관 협업의 축적된 역량을 응축한 '100세 시대 건강통합돌봄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광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LH가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며, 전문적인 왕진과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의료사회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는 물론 광주의료사회 우리동네 의원과 연계

한 방문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 고려대 의료원이 함께 하는 AI(인공지능)스마트 돌봄사업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진화하고 있는 휴블런스에 정부도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휴블런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광산구의 휴블런스를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휴블런스는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최적의 지역 통합돌봄 모델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초고령시대 대한민국 건강돌봄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언제 어디서나 확인 '주차정보플랫폼'

###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서비스 정식 운영

광주 광산구는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정보플랫폼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는 2020년 광산구 스마트솔루션챌린지 사업을 통해 휴대폰 기반 스마트주차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1년 6개월간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선보이는 '광산시민행복주차장'은 광산구 관내 총 81개소 공영 및 공유 주차장 정보를 담고 있다. 주차장 위치부터 주차면, 주차요금,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이용률이 높은 44개소 주차장에 대한 차량계수기를 설치해 주차 가능 면 정보를 앱에 실시간 제공한다. 그동안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던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도 '광산시민행복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설치 후 가입해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시간 주차장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더불어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심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홍보물

있도록 주차장 결제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시민행복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16)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산구 '소셜 아이어워드' 대상 블로그 부문...자치구 중 유일

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 소셜 인터넷 혁신대상인 '소셜 아이어워드(i-AWARD) 2022'에서 지방자치기관 블로그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소셜 아이어워드'는 매년 분야별 우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미디어 플랫폼을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다.

광산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기관(군,구) 블로그' 분야 입상자에 포함된 데 이어 당당히 대상까지 수상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가 평가위원단 3800명이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콘텐츠 제공과 함께 최근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며 차별화된 디자인과 서비스를 선보인 광산구의 역량과 성과가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정,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구정을 위해 SNS 운영과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산구 환경직 노조, 구청장실 불법 점거

### 성과급 지급 요구, 구청 앞서 17일째 집단농성...폭행사건까지 발생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조의 구청 앞 집단농성이 구청장실 불법 점거사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조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17일째 집단농성을 이어갔고, 급기야 지난달 26일에는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광산구청장실을 30여분간 불법 점거했다.

이날 환경직 노조원들이 구청장실을 불법 점거하자 공단 K본부장이 급히 현장에 도착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광산구노사민정협의회 A사무국장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목덜미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폭행 피해를 입은 K본부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폭행 당사자인 노사민정협의회 A사무국장이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 신분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번 사태를 지켜본 주민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역할을 위해 채용된 A사무국장이 사측 관계자인 공단의 K본부장을 이유없이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환경직 노조의 무리한 집단농성의 경우도 항후 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행 피해를 당한 K본부장은 "환경직 노조원의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화와 타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환경직이 전담하고 있는 청소구간의 일부 민간위탁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 노조가 양분돼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일부 민간위탁 부분이 거론됐으나 명분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면서도 "항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환경직 노조의 집단농성과 관련해 "공단의 노조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며 "공단의 구조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해결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농기센터, '지역 농산물 가치 공감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빛고를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조리법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활용 가치 공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 시민이 지역 여성 농업인 강사와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교육이다. 주말(토요일)을 이용한 가족참여형 실습체험 교육이며, 빛고를 농산물에 대한 탐구와 가지파니, 애호박 보트 피자 등 색다른 조리법의 음식과 아이들을 위한 쿠키 만들기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기수로, 매주 토요일 오전 진행된다. 기수별 8가족(가족당 6살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2-5명)을

모집해 총 40가족이 참여한다.

오는 8일부터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바로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5기수 중 한 기수만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후 빛고를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자부담금(5000원)을 입금해야 최종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빛고를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으로 관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하거나 농촌지원팀(062-613-5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광주 광산구는 "최근 구청 운영위원회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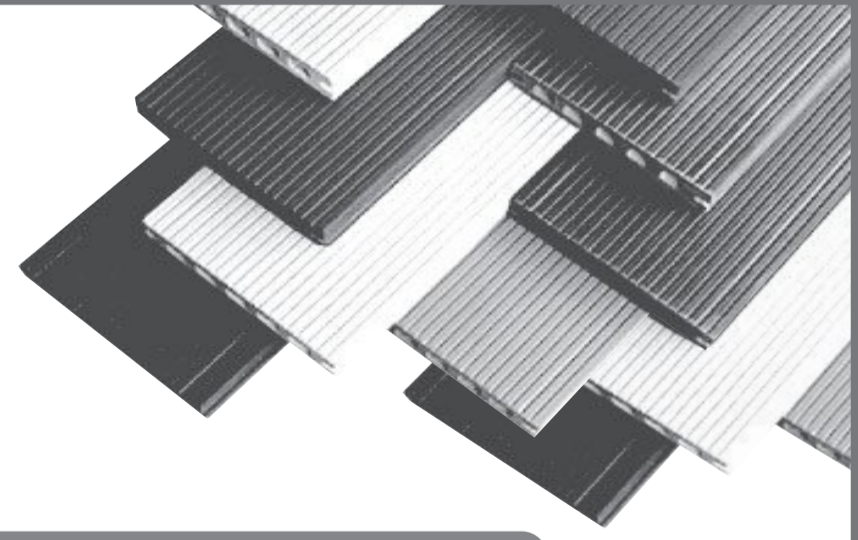
워크숍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박인아(호남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위원이 핵심부서 간담회, 보호·안정, 교육, 고용, 주거, 일자리, 환경, 문화여가 등 10대 사회보장영역에 대한 광산구의 사업과 운영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광산구 공직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위원, 민간 활동가 등이 세부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총 35개 제안이 접수됐으며, 대상은 '지역을 넘어, 도시에 새 숨 불어넣는 우리 마을 응원군'이, 우수상은 '정보취약계층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업 온(ON) 가족 이웃공동체 사업'이 선정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